

“ ‘문화·예술’ 담은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2022 새해설계

임택 동구청장

“민선 7기 슬로건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구현을 위해 끝까지 열심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임 구청장은 “동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던 가슴 벅찬 3년 6개월이었다”면서 “방동삼척 비일일 지한의 자세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구만의 경쟁력을 갖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동구는 올해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웠다.

가장 먼저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환경·생활편의·지역경제 활성화 혼신 온라인기록관 구축·인문자산 콘텐츠 활성화

형 전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구도심인 충장로와 금남로 권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되는 동명동, 산수동, 자산동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미래가 밝은 희망도시’ 동구 지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구다운 골목재생 기반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골목재생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동구만의 골목 정체성 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에 진입한 동구만의 특화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비대면이 일상인 사회흐름에 따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체험과 백세대학, 백년동아리,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꿈이자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나눔 플러스’, ‘동구 재간둥이 동아리’ 사업을 비롯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동구는 또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빛의 로드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및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대구관광재단과 울산 중구와 협약을 맺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물론 ‘동구 관광의 달’ 운영,

동구 전담여행사 위촉을 통해 체류·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축제 전담조직인 글로벌 축제 추진단을 신설해 지역을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충장 월드 페스티벌(가칭)’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동구답게 참여와 협치의 자치공동체도 실현해 나간다.

동구 온라인기록관을 새로 구축하고, 시민 문명관의 집과 인문학당 등 인문자산을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인문도시 동구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이 주체가 되는 독서 문화 축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행정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구 구정은 신년에도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켜 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지투리 소식

마을활동가 인터뷰 엮어 출간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온 마을활동가 33인의 다양한 인터뷰를 엮은 책이 완성됐다.

5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마을활동가 및 마을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온리동구 사람책 도서관 VOL.1’ (부제 ‘동구마을 활동가 33인의 빛나는 이야기’)이 발간됐다.

‘온리동구 사람책 도서관’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마을활동가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마을 자원을 자료화하는 동시에 동구 마을활동가의 소속감 및 마을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평생학습 사례집 발간

광주시 동구는 생활의 달인을 발굴하고 노하우를 지역민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동구 생활의 달인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의 달인은 우리 주변의 달인이 강사가 돼 본인들의 특화된 기법과 기술을 지역민에게 나누고,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구만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책자에는 ▲동구평생학습관 소개 ▲동구 생활달인 소개 ▲달인만의 노하우 ▲동구 생활달인의 유튜브 강좌 동영상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영상은 광주 동구청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긴급지원 등 ‘만족’ 재가 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광주시 동구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 재가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가 장애인 2,761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일상생활, 주거, 복지서비스 등 9개 분야 84문항에 대해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환경과 재난 대비, 긴급 지원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 ▲중증장애인 가구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장애아 자녀에 대한 양육 정보 제공 ▲맞춤형 일자리 확대 분야 육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동구는 올해 전년 대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80명을 추가 선발하고 주거안전을 위해 중증장애인 리모컨 전등 설치, 차임벨 설치 사업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빈 기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간판 수량·높이 제한...광주 지자체 최초

광주시 동구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광주 자치구 최초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5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옥외광고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청취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옥외광고물은 일상생활 노출빈도가 높은 반면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돼 가로경관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의 우려도 있었다.

특히 현재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는 상태였다.

동구,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최우수 지자체

광주시 동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은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 또는 거주민이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고 부담해

새로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지역별 간판 수량 ▲간판 크기 ▲입체형 설치 권장 ▲원색사용 자제 ▲간판의 설치 높이 ▲두 개 업소 이상 돌출간판 연립식 설치 등을 규정한다.

동구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구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간판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신규 간판 설치 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광고물의 경우는 연장 허가 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견고하고 찾고 싶은 도심거리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야 할 이자 중 4%의 이자 1년분을 동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저신용자 금융 사각지대 해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시책 발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민빈 기자



광주시 동구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경양마을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 제공

“경양방죽 역사·문화 도자기에 담았어요”

계림1동지사협 작품전시회

광주시 동구 계림1동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이모저모를 직접 도자기로 빚어내고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광주 동구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한 ‘우리 동네 경양마을 이야기’ 시화·도자기 작품 전시회를 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계림1동은 그동안 이웃과 마을의 역사

와 이야기를 알리는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경양마을 스토리텔링 콘서트’와 우리 동네 마을이야기를 도자기로 만들어 보는 ‘내가 만드는 경양마을 이야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스토리텔링 참여자인 윤 모 어르신(79)은 “오랫동안 계림1동에 살아 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을과 이웃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이웃들과 함께 마을 여거저거를 탐방하다 보니 내가 사는 이곳에 더욱

애정이 간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도자기 수업에 참여한 김 모씨(32)는 “계림1동의 역사 중 하나인 경양방죽을 스토리텔링한 도자기 만들기 등 뜻깊은 체험이었다”면서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아직은 낯설지만 앞으로 계림1동에 애정을 갖고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순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림1동의 역사를 알리고 마을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골드클래스(주) ☎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